

종합·해설

범여 총선 '공천 혁명' 제대로 될까

낮은 지지율·기득권 장벽... 실행 미지수

신당 "호남·정동영계 물갈이 쇄신 동력 찾아야"

민주·창조한국당, 쇄신위 열어 인재 영입키로

대선 완공 후폭풍에 휘말린 대통합민주신당 등 개혁 진영(범여) 내에 오는 4·9 총선 '공천 혁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공천 혁명은 참신한 정치신인 영입을 통한 '공천 물갈이'를 당 쇄신작업의 전면에 내세워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전략은 당 내부에서 현역 의원의 강한 반발을 받았지만 향후 5년여 동안 개혁진영의 정치적 성과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공천 혁명을 주장하는 기저에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탄돌이 의원'(탄핵물풍에 의해 쉽게 당선된 국회의원) 등 색깔을 지우지 않고는 신당이 국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대선 패배의 교훈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차떼기' 오명에 이어 2004년 3월 '탄핵풍'으로 당 지지율이 7%로 떨어지는 등 공비박산의 위기에 처했지만 공천 혁명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121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재기할 상황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24일 열린 신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공천혁명이 이뤄져야만 내년 총선에서 개헌 지지선 이상의 의석(10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 혁명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

'탄돌이' 등 현역 의원의 70~8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물갈이고, 둘째는 수도권 및 영남권 등 신당 약세지역을 공략하는 차원의 공격적 공천이다.
첫 번째 방법인 물갈이의 대상 지역으로는 우선적으로 호남이 거론되고 있다. 신당 관계자는 "호남 의원들은 당에서 큰 역할을 하지도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커서 수도권 의원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읍참마속 차원에서 호남지역 의원들을 70~80% 물갈이해 당의 쇄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정동영계 의원들도 대폭적 공천 물갈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세지역 도전 공천은 당내 실력자들이 직접 한나라당 강세지역, 또는 결출한 '적장'이 있는 곳에 출마,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으로부터 떨어진 신당에 대한 관심을 되찾을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문학진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 출마를 고집하지 말고 당에서 필요한 대로 어디든 가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해내는 적극적인 출마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이러한 도전을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의원은 출잡아 4~5명 선. 친노인 유시민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걸고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덕양갑'을 포기, 대선 후보용 한나라

당 의원의 텃밭인 '대구 수성'에 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동영 전 의장의 '브레인'인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동대문' 지역구에서 맞붙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서대문'에서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호남지역 대선 의원인 김원기(6선), 장영달(4선), 정동채(3선), 정세균(3선) 의원 등도 지명도가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한 판 대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타 개혁진영=민주당은 25일에도 당쇄신허별 회의를 열어 과감한 인재영입과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공천 혁명을 집중 논의했다. 강세지역인 호남을 중심으로 당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대표주자들을 1월 중 전략공천을 통해 조기에 발탁한다는 예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인재영입이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다.
민노당도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아예 정파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중·민주'의 최대 그룹인 '전진'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당 혁신에만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최대 정파인 '자주'(NL)의 최근 회의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지 말자는 의견이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한국당은 당 발전대책위 산하 총선준비단을 중심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총선준비단은 별도로 최고위원급을 단장으로 하는 외부인사영입위를 운영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총선 후보 발굴과 전략 수립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24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정신지체장애 시설인 광주 서구 용두동 '사랑의 집'에서 원생들과 성탄 전야를 보내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정동영, '백의 종군' 의지 재확인

광주 피정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

광주에서 3일간의 휴식을 갖고 25일 서울로 떠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광주 구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대 대선에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다 패배한 정 장관은 지난 23일 신당의 '정치적 메카'인 광주를 찾아 서구 용두동의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사랑의 집'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피정의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목포 선대본부 등을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했으며, 이 자리에서 "많은 성원에 불구하고 기

쁨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패배 이후 곧바로 이뤄진 정 전 장관의 이번 피정은, 가깝게는 신당의 전당대회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구심점 회복이라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광주에 도착한 정 전 장관은 광주·전남선대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부족한 저에게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기쁨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광주·전남에 큰 마음의 빔을 쬐으며,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필요하다면 당도 해산해라"

신당 초선의원 18명 전면쇄신 촉구
지도부 사퇴·인적 청산론 주장도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초선의원 18명은 25일 "필요하다면 당의 해산까지도 포함하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쇄신과 재편이 필요하다"며 지도부 사퇴 및 쇄신위의 재구성, 참여정부 시절 당·정·청 핵심인사들의 백의종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당과 정부, 국회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의 경우 동료 의원들보다 더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을 요구한다. 백의종군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쇄신위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현상유지와 자리 나누기에 급급한 현재의 쇄신위는 민주개혁

세력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조계파적 인사, 학계 등 당파의 인사 등으로 재구성하되 기존의 주요당직 출신은 제외되어야 하며 쇄신위의 일정과 목표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문병호 한광원 최재천 강성종 이기우 제종길 정성호 이상경 이계안 안민석 양소우 제창 박상돈 최철규 채수찬 서해석 박찬석 홍창선 의원 등 서울·수도권과 충청권 및 비례대표 의원 등 18명이 서명했다.
문병호 의원은 성명 발표 후 일문일답을 통해 "인적쇄신과 함께 당의 노선, 지향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정·청, 그리고 국회에서 중요 핵심 역할을 했던 분

들의 2선 후퇴를 통한 새로운 일신이 요구된다. 일단 당단을 촉구하고 용단하지 않으면 공천혁명을 통한 물갈이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 당은 이미 1년 전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로, 적당히 리모델링하고 당과 정부에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쇄신위를 사실상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미봉책만 제시하려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며 "추후 초선들도 쇄신 대상이 된다면 우리부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과거 정풍운동 때보다 더 위급한 상황으로, 필요하다면 정치적 해산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민노 지도부 29일 총사퇴
총선까지 비대위 가동키로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9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총사퇴하고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노당은 26일 문대중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대선 참패 직후부터 총사퇴 시기를 논의해온 지도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총사퇴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최대 정파인 '자주계열'(NL)과 민중민주계열(PD) 내 최대 그룹인 '전진'은 지난 23일 각각 회의의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바 있다.
비대위는 총선 때까지 당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으로는 심상정 의원 등이 불명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심대평 "뵙 총선 출마해야"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는 25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관련, "당연히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와 함께 보수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심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신당 창당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총재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신당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겸손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신당 창당의 주도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이 전 총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념을 보강하는 정당, 국민통합의 정당이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당과 관련, "국중당은 이 전 총재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이뤄지는 만큼 국중당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할 것"이라면서 당 대표를 맡을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angeul Education Institute (현대고시학원) featuring various courses like '2009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and 'Language Courses'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bit Public Service Exam Academy (한빛공무원학원) for the 2008 exam, highlighting '7th Grade Public Service Exam' and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with a phone number 222-4560.

Advertisement for Magic (마술) free lecture series, including details about the 'Magic (Magic) Free Lecture Ser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MB English Academy.